

“흐리고 캄캄한 날에 내 양을 찾아서 건져낼지라” 산사태 사망자 600명 넘는 듯...피해지역 접근 헬기만 가능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다. 26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 24일 오전 앵가주(州)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6개 이상 마을 150채 이상의 가옥이 매몰됐으며 사망자가 67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사망자 수를 300명대로 추산한 바 있다. 또 초등학교와 노점, 주유소 등 건물을 포함해 주민들이 가꾸던 텃밭이나 과수원 등이 완전히 매몰됐으며 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매몰된 이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가옥들에 평균 가구원을 계산해 사망자를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사태로 길이 차단되고 인근 지역에서는 부족 간의 다툼이 계속되면서 구조대나 중장비의 진입도 어려워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상자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호주 ABC 방송은 헬리콥터가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세르한 악토프락 파푸아뉴기니 유엔 국제이주기구 대표는 “산에서 바위와 흙이 계속해서 떨어져 구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난센터의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금요일 발생한 재난으로 2,000명 이상이 생매장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사태가 발생한 앵가주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3,8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고 피해는 약 1km에 달할 만큼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4일 오전 발생한 이번 산사태는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발생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나라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출처: 연합뉴스, 기도24·365본부 종합).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에스겔 34:11-12)

하나님,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혼돈 가운데 놓인 파푸아뉴기니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음같이 매몰된 자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몰아닥친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복음과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지원하여 속히 이 땅과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방글라인도, 사이클론 '레말' 강타 29명 사망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대형 사이클론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해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약 10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26일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방글라데시에서 최소 10명이 사망했고 전력망이 파손되면서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인도 서벵골주에서는 4명이 감전사하는 등 6명이 숨졌다. 서벵골주에선 최소 1,200개의 전신주가 쓰러지고 오두막집 300여 채가 파괴됐다. 또 인도 동북부 미조람주 주도 아이자울 외곽의 한 채석장이 28일 폭우로 붕괴해 최소 13명의 인부가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 방글라데시 재난관리 구호부는 전날 해안 지역 전역에서 약 8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고, 휴교령을 내렸다. 인도도 해안 지역 주민 약 11만 명을 대피시켰고, 인도 해군은 긴급구호 활동에 나섰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119:18-19)

하나님, 대형 사이클론으로 인해 시설들이 파손되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주께 의탁하오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조하여 주십시오. 쏟아지는 폭우와 들이치는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날씨를 다스려 주시고 두 나라의 영혼들에 주의 계명을 밝히 드러내사 그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로 이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 미국 중남부, 폭풍우·토네이도로 18명 사망

미국 중남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켄터키 등에서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이 잇달아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26일 AP통신 등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서는 EF-2등급(풍속 178-217km/h)의 강한 토네이도가 이동식 주택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덮치면서 2세와 5세 어린이를 비롯해 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텍사스에서는 주 전체 106개 카운티 중 3분의 1 이상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칸소주 분 카운티의 작은 마을에서도 주택 여러 채가 파괴되고 최소 5명이 숨졌으며, 아칸소주 벤턴 카운티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미 중남부와 동부 일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풍이 전력 시설을 파손시킨 탓에 이날 오후 7시 기준 약 54만 가구에 전기가 끊긴 상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시편 55:1,8)

하나님,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미국의 영혼들이 오히려 이때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갈급함으로 찾아 간구하게 하옵소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복음을 만나게 하소서. 미국의 교회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섬김의 손길이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여 복음의 축복이 만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프랑스, 기독교인 대상 증오 범죄 급증



프랑스에서 기독교 대상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지난 14일, 프랑스의 푸아티에의 생테레즈 가톨릭교회가 방화 등의 테러를 당했다. 침입자들은 마리아상을 파괴했으며 교회에 불을 질렀다. 해당 교회가 이러한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내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에 프랑스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약 1,000건의 증오 범죄가 보고됐다. 법무부 대변인 카밀 샤이즈(Camille Chaize)는 프랑스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RCF와의 인터뷰에서 알려진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거의 1,0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녀는 90%가 교회 건물이나 묘지와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0%는 84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했으며, 이는 언어적 폭행인지 신체적 폭행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샤이즈가 인용한 보고서를 발표한 내무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안 서비스에 의해 기록된 범죄와 위법 행위 및 벌금의 대부분은 모욕, 도발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 전국 경찰과 헌병대는 반종교적,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 범죄를 총 1만 5,000건 기록했다.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증오 감시소(OIDACE)에 따르면, 이로 인해 당국은 부활절 성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1만 명의 보안 인력을 동원했다. ‘유럽 내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 및 증오 감시소’의 디렉터 안자 호프만(Anja Hoffmann)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력과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호프만은 “한편으로 프랑스의 세속주의(laïcité)는 종종 공공 영역과 직업에서 종교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급진적 세속주의로 해석되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반면에 급진적인 이슬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분류된 특정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개종자가 되면 종종 위협, 차별, 또는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기록된 범죄 사례에는 5건의 방화 공격, 여러 건의 심각한 기물 파손, 공공 십자가 훼손, 심지어 “오늘은 이교도의 땅에서, 내일은 이슬람의 땅”이라는 슬로건이 포함된 이슬람주의 글이 적힌 공동묘지까지 포함된다. 프랑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반기독교 증오 범죄는 하루에 거의 3건에 달하며, 연간 약 1,000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기록되고 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2,16-17)

하나님, 급진적 세속주의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프랑스에서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한다는 소식 앞에 프랑스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을 딛고 사는 교회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여 프랑스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를 찾아 돌아오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러, 유럽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해 공작 강화

러시아가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막기 위해 방해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를 인용,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미국·유럽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영국의 창고, 폴란드의 페인트 공장, 라트비아의 주택, 리투아니아의 이케아 매장 등에서 방화 또는 방화 시도를 통해 저항도 방해 공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러시아 첩보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유럽 안보 관계자들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지인을 고용해 이 같은 공작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에스토니아 카야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25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대형 상점을 공격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욥기 5:12-14)

하나님,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 지원마저 방해하는 러시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교활함을 보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께서 인간의 지혜가 서지 못하도록 저들의 간교한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를 경외하지 않음이 낮에도 어두움을 만난 것 같이 되게 하사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열방의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의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주소서.

▲ 시리아, 이스라엘 공습으로 어린이 1명 사망·10명 부상

29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1명이 죽고 민간인 10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방부가 밝혔다. AFP통신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레바논 방향에서 시리아 항구도시 바니아스의 주거용 건물과 중부 지역 한 곳이 공습을 당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 공습으로 여자아이 1명이 숨졌고 민간인 20명이 다쳤으며,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함께 활동하던 시리아 전투 요원 3명 등 5명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에서 이란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헤즈볼라 등을 겨냥한 공습을 지속해 왔다. 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시리아에서도 공습을 확대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 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히박국 3:2)

하나님, 언제 평화가 찾아올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는 공습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시리아를 긍휼히 여기사 아이를 잃고 부 상당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속하여 잘못된 믿음과 싸움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화약 고가 된 중동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을 듣고 믿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사 중동과 시리아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속히 이뤄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라”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 온라인 성학대 경험



매년 전 세계 어린이 3억 명 이상이 온라인에서 성적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에든버러 대학의 ‘차일드라이트 세계 어린이 안전 연구소’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 중 12.6%에 해당하는 3억 200만 명이 온라인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어린이가 겪은 성적 학대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이미지와 영상에 노출되고 이를 공유받고, 이에 대해 대화하는 것 등이었다. 또 전 세계 어린이 중 12.5%는 성인이나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섹스팅’(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이나 성적인 질문, 성적인 행위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 등을 찍도록 유인한 후 그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유포할 수 있다며 돈을 뜯어내는 ‘성 착취 범죄’(sextortion)의 형식으로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온라인상의 어린이 성적 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 위험성이 높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미국에서는 남성 9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천400만 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영국에서는 전체의 7%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많은 남성이 비밀로 유지될 수 있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차일드라이트 연구소의 소장 폴 스탠 필드는 이 같은 아동 학대가 너무 널리 퍼져 있다며 “매초 감시 기관에 신고될 정도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카바노프 영국 인터폴 국장은 전통적인 법 집행 방식으로는 온라인상의 어린이 성 학대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서 “전문 수사관 교육, 자료 공유와 장비 개선 등 세계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3,5-6)

하나님, 음란의 종이 되어 색욕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한 세대에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거룩한 주의 빛을 비취주소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성적 학대가 그쳐지도록 국제사회가 힘써 대응하게 하시고, 악용되는 온라인 기술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소서. 범죄에 이용당한 3억 명의 아동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 홍콩, 새 국가보안법 첫 적용...텐안먼 사태 기념 시위 활동가 6명 체포

홍콩 경찰이 28일 새로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텐안먼(천안문) 사태 기념 시위를 수십 년간 주최해 온 활동가 등 6명을 선동적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체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안보장관은 집회 배후 단체의 전 지도자 주항팅이 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텐안먼(천안문) 사태 35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탕 장관은 이들이 중국과 홍콩 정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기 위해 게시물을 만들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홍콩은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역과 폭동을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법을 도입했다. 이에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예레미야 21:12)

하나님, 중국에 민주주의를 소망했던 천안문 사태 기념 시위를 주최한 활동가 6명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 억압으로 자신들의 권속 아래에 두려 하는 중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실 정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 구하오니 위정자들이 죄에 분노하시는 주 앞에 겸손케 하시고 속히 이 땅에 자유가 회복되게 하소서. 진리를 몰라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 통제법 강행

캅카스 지역의 조지아가 국민들의 반발과 서구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 통제법을 강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조지아 의회는 2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외국 대리인' 법안을 표결에 부쳐 84대 4의 압도적 표차로 거부권 무력화를 결정했다. 이날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하면서 닷새 안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해 전체 예산 중 20% 이상을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간주해 등록을 강제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시민사회는 친러시아 정권이 러시아가 이 법으로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것을 본떠 국내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 한다고 최근 몇 주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로마서 8:19-21)

하나님, 러시아에 종속되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두려워하며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조지아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외국 대리인' 법안으로 복음 전파의 길이 더 막힐 위기와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 하는 조지아 정부를 간섭하사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경외하며 주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룬 증인 되게 하사 조지아에 복음이 흥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